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1일 광주 시내에 각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태규 기자

이재명 “시대정신은 내란 심판”...김문수 “방탄독재 저지”

6·3 대선 D-1

마지막 주말 사활 건 득표전
 지지층 결집·중도 포섭 경쟁
 ‘협오·비하’ 네거티브 가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6·3 대선 마지막 휴일인 1일 총력 유세전을 펼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3편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 김문수 후보는 “방탄독재 저지”, 이준석 후보는 “40대 기수”를 외치며 지지층 결집과 함께 대선 당락을 가를 중도층 공략에 집중했다.

특히 본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협오·비하 등 네거티브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1강 1중 1약' 구도로 시작된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선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며 막판 역전을 노리는 모

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고향 안동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을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며 “주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라며 대선의 시대정신인 ‘내란 극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들은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총구를 부여잡고 내란 군사쿠데타를 진압했다”며

“6월 3일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투표로 증명합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안동에 이어 ‘민주당 힘지’로 통하는 대구·울산·부산을 차례로 방문하고 ‘K-이니셔티브’의 꿈을 영남에서 현실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들어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코스피 5,000 달성” 등 민생·경제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계엄,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유권자에 정치적 피로감을 줬다는 판단 속에 중도층에 소구력이 큰 정책 이슈를 강조하는 한편, ‘준비된 지도자’ 면모를 부각해 자신을 집중 견제하는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포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감옥

같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라며 ‘반 이재명’ 기치를 내걸고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끌어안기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역대) 경기지사였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하나 빼고 전부 저를 밀어준다”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청렴함과 업적 등이 이 후보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 조명받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세대 정치인과 차별화한 젊음을 앞세운 ‘40대 기수론’으로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동시에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각각 ‘환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양당 정치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본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검증과 반박이 쉽지 않은 단기전의 속성상 상대의 득표력에 타격을 주는 손쉬운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3차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했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무고로 맞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극우 성향 단체의 댓글 조작에 국민의힘이 관련 있다며 이를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범새가 풍긴다고 맞대응했다.

친민주당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남영 여사를 두고 한 발언도 여전히 논란이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전남·북 38년만 ‘90%대’ 투표율 넘나

사전투표 50%대 ‘역대급’
 ‘직선제’ 이후 최고치 촉각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호남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90%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6·3대선 사전투표 결과, 전남 56.5%, 전북 53.01%, 광주 52.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4.74%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대비 전남은 5.05%p, 전북 4.38%p, 광주는 3.85%p 각각 상승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등이 호남지역 사전투표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본선거까지 이어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지 여부다.

앞서 호남에선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3대 대선 당시 90%대 투표율이 나왔다. 당시 광주의 투표율은 92.4%, 전남 94.8%, 전북 95.9%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은 91.8%에 달했다.

호남은 이후 14·15대 대선에서 각각 80% 중후반대 투표율을 기록했고, 16~20대 대선은 70~80%대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투표율 85%, 득표율 90% 이상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이 강한 호남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진보 진영의 결집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표심을 공략해 지난 대선에서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자릿수 득표율을 뛰어 넘겠다는 목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평일에만 진행됐음에도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급등한 것은 ‘내란 종식·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본투표까지 이어진다면 역대 최고 투표율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도 “사전투표 전국 최고...참여에 감사”

전남도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도내 투표율이 역대 최고이자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5.05%p 상승한 56.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전남도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탁월한 참여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감사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평일에 실시됐

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준 점에 대해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민이 가진 뿌리깊은 민주 정신과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숭고한 연대 정신 덕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또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위대한 전남의 저

력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성지 전남을 이끌어가는 전남도민의 주권자 의지를 마지막까지 힘껏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INSIDE 뉴스

- 강기정 “금타 새공장 지원” 2
-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저조 7
- 기획 / 정철원 담양군수 8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